

# 고려인들의 삶과 전통복장에 대한 이해

최 규 성

상명대학교 사학과 교수

## I. 서 론

전통의상은 한 시대의 생활상을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민족의 문화와 역사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전거로 삼기도 한다. 그런데 그 전통의상은 단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그 민족이 자리한 독특한 자연환경 속에서 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고려시대 사람들이 어떠한 기후조건 하에서 어떠한 사회 경제적 구조를 갖고, 어떤 집에서 잠을 자고 생활하였느냐에 따라서 고려시대 전통 의상은 나름대로의 독특한 스타일과 특성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이 이룩한 역사와 사회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어떠한 것들에 가치와 의미를 두고 살아 갔느냐에 따라 고유한 사상과 가치관을 형성시켜 나가게 되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 고려의 의상문화도 독특한 개성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의 의복 연구사에서 가장 미개척 분야로 남아있는 부분이 고려시대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일 것이다. 그 이유는 삼국시대만 하더라도 고분벽화를 비롯해서 각종 토용이나 다양한 고분출토 유물을 통해 그 형태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던 반면 고려시대의 경우 그 당시 제작한 의상으로 현존하는 의상이나 관계 유물이 극히 제한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최근 발견되는 각종 불상 부장 유물 가운데 고려시대 복장과 염직물들이 나타나고 있어 부족하나마 고려시대의 옷감과 복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12세기 고려에 와서 전문한 서공이 고려인의 의식주에 대해 그림과 기록으로 남긴 고려도경이 비록 기록들만 남겨지게 되었어도 그 속에는 당시 고려인의 전통의상과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전해지고 있어 고려시대 의상연구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발표에서는 고려사를 비롯한 각종 사서 및 고려도경 속에 나타난 고려시대 의상과 관련된 기록들을 비교 검토하면서, 그 동안 소개된 각종 불복장 유물들을 이용해 고려인들의 생활 속에서 형성되고 발달한 전통의상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그리고 고려시대 전반에 걸친 검토는 시간과 능력부족으로 인해 발표를 하지 못하고 다만 힘 닿는 부분까지만 다루고자 한다.

검토 순서는 먼저 고려 시대인들의 주거 생활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러한 환경 속에서 고려인들이 창조한 전통의상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 II. 고려인의 住生活에 대한 이해

겨울이 길고 추운 한반도의 기후적 특성과 함께 고려를 건국한 주체세력이 고구려 계통이었고 건국 초기부터 국가가 고구려의 부흥을 위한 북진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함에 따라 고구려적 특징을 가진 생활문화가 새롭게 발전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12세기 고려 인종때 송나라 사신단의 일원으로 고려에 왔던 서경(徐兢)은 고려 도성의 모습에 대해 자세하게 서술하여 남기었다.

송의 사신으로 고려에 왔던 젊은 서경은 눈앞에 나타난 고려의 성곽들의 위용에 감탄한 나머지 「성곽들이 우뚝우뚝하여 실로 업신여길 수가 없다」고 감탄의 마음을 솔직하게 토로한 것을 볼 수 있다.<sup>1)</sup> 그 뿐만 아니라 12세기 고려인들은 높은 주거문화 수준을 유지한 속에서 정제되고 법도 있는 도시 공간을 건설하였던 사실을 기록하여 전하고 있다.

특히 서경은 수도 개경의 화려한 모습을 스케치한 후 설명한 글을 남기었는데 그 내용을 간추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2세기 인종 때에는 개경의 왕궁과 관도 양쪽에는 왕실과 귀족들이 거주하는 무수한 고루와 거각들이 사치할 정도로 들어 차 있었고, 특히 2층집으로 볼 수 있는 누각들 속에는 '발'과 '장막'까지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어 당시 최고의 선진 문화대국을 자처하는 송에 비해서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개경의 귀족들은 화려한 住生活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sup>2)</sup>

반면 民居는 보잘 것 없는 소규모의 초가집에서 형편 없는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묘사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서경은 서민들도 온돌방에 따뜻하게 불을 때고 흙바닥 위에는 거칠게 짠 자리를 깔고 살았는데, 그것은 부드러워서 접거나 굽혀도 전혀 망가지지 않는다고 우수한 난방시설에 대해 칭찬을 하고 있다.<sup>3)</sup> 이것을 보면 고려 서민들은 지난 50년대까지도 한국에서 볼 수 있었던 농촌의 서민가옥과 유사한 형태의 주거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비록 거친 자리 떼기를 깔고 지낼 망정 추운 겨울을 훌륭히 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선진적 난방 방식인 온돌 시설을 갖추고 생활해 나갔던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서경은 고려의 상류사회 사람들은 침상으로 와탐(臥榻)을 사용하였으며, 또 그 앞에는 평상 세트를 더 놓고 지냈는데 각각의 평상에는 난간이 둘러 세워졌고 무늬비단의 보료를 깔아 놓았거나 돛자리를 깔아 놓기도 하여 앉으면 대단히 편안한 감을 느꼈다고 기록하여, 고급한 와탐이나 평상과 같은 입식의 주거공간을 꾸미고 생활하였던 사실을 전하고 있다.<sup>4)</sup> 이 설명을 자세히 보면 12세기 고려 귀족들은 화려하고 규모가 큰 위생적인 주택 속에서, 고구려식의 입식생활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12세기 고려인들이 세계 최고의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이다. 서경은 고려인들의 청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1) 徐兢, 『宣化奉事高麗圖經』 卷 3 城邑條.

2) 위 책, 卷 3 樓館條.

3) 위 책, 卷 28 文席條 참조.

4) 위 책, 卷 28, 臥榻條 참조.

「옛 사서에 고려를 실었는데 그 풍속이 다 깨끗하다고 하더니 지금도 그러하다. 그들은 매양 중국인들의 때가 많은 것을 비웃는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목욕을 하고 문을 나서매 여름에는 날마다 두 번씩 목욕을 하는데 시내 가운데서 많이 한다.」<sup>5)</sup>

위 글에 의하면 서궁이 어떠한 옛 사서를 보았는지는 몰라도 전통적으로 중국인들은 고려에 대해 일찍부터 깨끗하다는 인상을 갖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2세기 인종대에 와서도 귀족과 서민들 가리지 않고 고려인 모두의 생활이 여전히 위생적이고 깨끗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세기 전 세계에서 고려인들 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목욕부터 할 정도로 청결한 몸을 유지했던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목욕문화의 발전에 따라 목욕용 전문 의상이 나타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고려 귀족들의 일상 생활은 더욱 더 호사스러울 정도로 청결한 생활을 영위하였던 것 같다. 서궁은 이와 관련해서 「부잣집에서는 큰 자리를 깔고 사비가 곁에 늘어서서 각기 수건과 정병을 들고 있는데 더운 날이라도 괴롭다 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글을 남기고 있다. 이 글에 의하면 여름철이면 화문석 같은 화려하고 청결한 자리를 깔고 앉아 노비가 곁에서서 말아 주는 정병의 물로 수건을 적서 수시로 손을 닦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오늘날 도처에 산견되는 청자 정병들과 은을 비롯한 청동 등 각종 금속으로 만든 정병들을 가지고도 이 사실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12세기 인종대 귀족들은 규모가 크고 화려한 가옥에서 위생적이고 청결하며 아취가 있는 입식의 주거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다. 그리고 고려의 전통 의상은 이와 같은 주거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환경 친화적이고 넉넉하면서도 깨끗하며 우아한 특징을 가지면서 변화 발전해 나갔던 것으로 생각된다. 서민의 의상 역시 위생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속에서 주어진 여건에 따라 실용적인 복장으로 발전해 나가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Ⅲ. 고려인들의 의생활과 그 특징

일반적으로 전통복식의 형성 발달에는 그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의 환경적인 특성과 함께 주거문화적 특성과 수준이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고려는 정치 사회적으로 신라 천년의 전통을 평화롭게 이어받음으로서 고려 사회 일반에서는 통일 신라 시대 의상문화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는 역사적 특징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고려 건국 초기의 사상과 문화를 주도한 계층이 신라의 구 귀족이었기 때문에 신라적 전통이 고려사회에 계승되는 데도 일조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 문화의 중심이 경주로부터 개경을 위요한 중부권으로 북상하면서 의상문화도 점차 변화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고려 건국 초기 고구려적 생활 문화로 회귀하는 경향과 함께 왕실과 상류층 사회에는 고구려계통 즉, 북방계통의 의상이 유행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을 것이지만 고려사회 전반에 걸쳐 복구되어 주류로 자리 잡고 발전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5) 위 책, 卷 22 雜俗 潮漚.

그런데 『高麗史』 「輿服志 序文」에는 고려의상의 始原과 변천 과정을 살필 수 있는 기록이 다음과 같이 전해지고 있다.

- 가) 東國은 三韓으로부터 儀章 服飾의 國風을 따르다가 신라 태종(무열왕)에 이르러 당의 를 청하여 들여다가 襲用하니, 이 후에 관복의 제도가 중국에 어느 정도 比擬하게 되었다.
- 나) 고려 태조는 개국 초 일이 많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신라의 구제를 그대로 따라 사용하였다.  
광종에 이르러 비로소 백관의 공복을 정하니, 이에 尊卑·上下의 等位가 밝혀졌다. 顯宗이 남쪽에 蒙塵하게 되매, 文籍이 散逸되어 제도를 시행함이 어떠하였는지 그 상세한 것을 알 수 없다.
- 다) 毅宗朝에 平章事 崔允儀가 祖宗의 憲章을 모으고 唐制를 가려 섞어서 고금의 예를 상정하였는바, 위로는 儀衛鹵簿에 미치고 아래로는 百官의 官服이 실리지 않음이 없이 一代의 制度가 갖추어졌다.<sup>6)</sup>

위 사료 가)에 의하면, 태종 무열왕에 이르러 당의를 청하여 들여다가 습용하기 시작하면서 관복의 제도가 중국과 어느 정도 일치하게 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 이전 시기까지는 신라의 전통적인 의복양식 즉, 국풍을 이어 나온 것이 되는데, 이때 당의 관복제를 수입 사용하였다고 해서 수 백년간 이어진 國風이 하루아침에 중국식 복제로 바뀌게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사료 나)에 의하면 고려 태조대 복식은 대체로 신라의 官制를 이어서 차용한 것을 알 수 있다. 고려 초 율령제나 관제는 거의가 당제를 모델로 삼아 시행하였기 때문에 관복제 역시 당풍을 따랐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光宗代에 이르러야 백관의 공복을 紫, 丹, 緋, 綠의 4段階로 정하여 尊卑上下의 등위가 밝혀진 것으로 되어 있어 광종이전 시기의 관복제가 단순히 당제를 습용한 것만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밖에도 사료 다)의 내용과 같이 고려의 문물제도가 완비되어 문화가 극성하던 毅宗代에 고금의 예를 상정하여 위로는 儀衛鹵簿에서 아래로 百官의 官服에 이르기까지 일대의 제도가 갖추어지게 됨으로써 드디어 고려의 전형적 관복제가 성립되기에 이르렀던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필 수 있었던 고려시대 복장사의 변천과정은 어디까지나 왕실과 공경장상등 국록을 먹는 관인들의 관복체제 변화에 국한되는 것일 뿐 귀족남녀의 사복이나 서민 복식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이 없어 여복지 서문의 기록만 가지고는 그 내용을 짐작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고려 성종대 최승노의 건의문을 통해 고려 건국초기의 서민복식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신라대 公卿百僚庶人의 衣服과 鞋襪에 각각 품색이 있어 公卿百僚가 朝會하면 公欄을 입고 穿執을 갖추나 退朝하면 使宜한데도 옷을 입었고 서인 백성은 文彩를 입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귀천을 분별하고 존비를 가린 때문이다.
- 나) 이로 말미암아 公欄은 土產이 아니나 백료가 자족하게 사용하였습니다.
- 다) 我朝는 太祖以來로 귀천을 막론하고 임의로 복장을 입어 관이 비록 높아도 짐이 가난

6) 高麗史 卷72 志 第26 輿服志 序文.

하면 능히 公欄을 갖추지 못하고 비록 職이 없어도 겹이 富하면 綾羅錦繡를 사용하였습니다.

..... 中 略 .....

- 다) 빌전대 백료로 하여금 朝會에서는 한결 중국과 신라의 제도에 의하여 公欄과 穿執을 갖추도록 하고 奏事할 때에는 革履를 신도록 할 것이며,
- 라) 서인은 文彩紗縠을 착용하지 못하게 하고 다만 紬絹만 쓰도록 하소서<sup>7)</sup>

위 사료 가)에 의하면 신라시대에는 관료들이 조회 때에만 公欄을 입고, 退朝 후에는 편의대로 옷을 입게 하여 신라 전통복 소위 궁복 의상이 이어져 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료 나)에 의하면 그 공란은 上産이 아닌 수입품이 대부분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사료 다)에 의하면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는 성종대까지도 신라시대의 준비귀천의 차등복제가 무너진 후 회복되지 않아서 官職의 有無에 관계없이 綾羅錦繡를 편의대로 사용하여 비교적 자유롭게 옷을 지어 입을 수 있었던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반면 가난한 공직자는 제대로 관복을 갖추어 입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최승로는 사료 라)의 내용과 같이 조회에서만 신라와 중국 제도와 같이 公欄 穿執을 갖추도록 할 것과 奏事할 때에는 공복에 어울리는 絛靴, 絲鞋, 革履를 신도록 요청하기에 이르렀던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을 보면 이때까지도 문무 백관들의 공복이나 신발이 통일성 있게 제대로 착용하지 못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태조 이래로 나타나게 되었던 자율복장제도가 성종초까지 허락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일반백성들에 대해 문채 비단의 착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대신 紬絹만 쓰도록 건의했는데, 성종 一代에 걸쳐 최승로의 건의사항 대부분이 실현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성종대 이후에는 고려 백성들의 의복에 문채 비단은 배제되고 紬絹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인들이 어떠한 옷감을 짜서 입고 살았는지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자. 지금까지 알려진 바의 고려시대 직물은 비단과 삼베 및 모시가 주종이었고, 고려말 문익전에 의해 원의 목화씨가 널리 보급되기 이전까지는 자연산 면이 생산되고 있었으나 극히 소량이 생산되었을 뿐이었고 비단의 경우는 명주 이외에 중국 비단이 다량 수입되어 상류사회에서 애용되었다고 보고 있다. .

그러나 고려시대 사서들을 자세히 보면 고려에서 생산한 비단의 질은 높은 편이었고 생산량도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다. 정종 3년 고려에 왔던 여진족 추장들에게 한 차례에 잡색 비단과 견직을 무려 1400 여필이나 하사한 것을 보면, 정종대에는 비단의 생산량이 많았던 사실을 알 수가 있다.<sup>8)</sup>

그리고 고려 역대 왕들이 중국에 보낸 물목들 속에는 각종의 고급 비단들이 반드시 들어있었던 것을 보면, 고려의 비단 생산기술이 뛰어났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광종대 이후 고려의 상류계층인사들은 물론 庶民 가운데서도 부유한 계층은 사치스런 비단옷을 평상복으로 입고 거리를 활보함으로써 사회문제가 된 것은 지적하면서 하루 속히 시정할 것을 건의한 건의문을 보면, 서민층까지 비단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비단의 생산량

7) 高麗史 卷 93 列傳 第 6 崔承老傳.  
8) 高麗史 卷 2 世家 2 定宗 3年 秋 9月條.

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던 사실과 함께, 풍부한 비단 생산에 힘입어 고려 초기 私服의 경우 上下貴賤 없이 재력이 있는 자는 마음대로 비단옷을 지어 입을 수가 있게 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부응하여 광종 9년에는 후주에서 고급비단을 수입하기 까지 하였던 사실을 찾아볼 수가 있다.<sup>9)</sup>

통일 신라 시대의 뛰어난 직물 채색법이 고려시대에도 전승되어 발전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최근까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한 기록이나 실물들을 찾아보기 어려워 분명하게 밝힐 수가 없었다. 그러나 고려는 織染局이나 都染署와 같은 어용 염료의 제조 및 염색을 맡은 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면서, 朱黃 淡黃 紫 丹 碧 綠 靑 烏靑 등의 다양한 채색을 개발 이용하였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고려시대에는 다양한 색채와 염색 기술이 개발되어 발전해 갔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孫穆은 鷄林志에서 “고려에서는 염색을 잘 하는데 홍색과 자색이 더욱 묘하다”고 하여 고려가 염색술이 뛰어났던 사실을 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공은 “고려에서는 각종 아름다운 무늬의 비단을 잘 짜며, 염색 역시 전보다 우수하게 되었다.”고 칭찬한 것을 보면 고려는 다양한 무늬의 비단을 잘 짚음은 물론, 다양한 색채의 염색 기술이 개발되어 중국과 대등할 정도로 발전했던 사실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서공은 「고려는 공장(工匠)의 기술이 자극히 정교하여 그 뛰어난 재주를 가진 이는 다 관아에 귀속되는데 이를 떼면 복두소나 장작감 같은 곳이 그곳이다.」<sup>10)</sup> 라고 기술하여 전함으로써 옷감 뿐만 아니라 옷을 만드는 장인들의 솜씨가 뛰어났던 사실을 짐작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1990년 온양 박물관이 입수한 아미타불의 복장유물 267점 가운데는 염직물 228점이 포함되어 있어 고려시대 각종 옷감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 옷감들은 함께 나온 목서명을 통해 이 유물들이 대체로 1302년을 전후하는 시기에 직조된 것들임을 알게 되었다. 그것을 분석한 연구서에는 그 종류를 크게 7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7종의 염직물들 가운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직물은 綾, 羅, 綃, 縵, 紬 등의 5종의 비단의 존재이다. 綾·羅는 綾羅錦縵라 하여 고대 王公貴族의 옷감의 대명사로 쳤던 비단인데 綾과 羅는 직조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무늬 있는 비단으로 한중일 삼국에서 공히 왕궁, 귀족의 의복에 많이 이용되었던 천이다. 특히 羅 가운데는 금은사로 짜거나 금박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복장 유물 속에 들어있는 붉은색 라에는 금박으로 亞字文과 花文을 박아 놓은 것이 있었다. 금박은 천에 무늬를 그려 넣고 그 위에 접착재를 칠한 뒤에 금박을 붙여 각종 무늬를 낸 것인데, 이 金箔羅의 발견으로 고려도경을 비롯한 각종 국내의 문헌에 나타나는 금박라의 실존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고려시대 금박 기술의 발전 정도까지 밝혀 낼 수 있게 되었다. 綃는 누에에서 추출한 명주실가운데 가장 가는 실로 짠 천으로 그 중에서도 輕綃는 자극히 얇고 가벼워 입으면 안개 속의 사물을 보는 듯한 감을 줄 정도로 얇게 짠 비단으로 알려졌는데, 복장유물로 발견된 綃 역시 자극히 얇고 가벼운 직물인 사실이 밝혀졌다. 縵은 두껍고 조각이 차밀해 물이 새지 않을 정도의 염직물이라고 알려졌다. 通典에서 “변한과 진한에서 縵을 제작하였다.”고 한 것을 보면 우리 나라에서 동절기 방한용 직물로 일찍부터 직조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복장유물로 발견된 紫色의 縵 역시 두껍고 촘촘히 짠 직물로 문헌의 기록들과 일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9) 高麗史 卷 2 世家 2 光宗 9年 末尾 紀錄 參照.

10) 徐鉉, 위 책, 卷 19 工技條.

紬는 대체로 굵은 실로 무늬 없이 두텁게 짠 평직이다. 고려시대에 사치를 금하는 교서에서 “혼인을 하는 집안에서도 다만 紬紵를 사용하고 힘써 검약함을 좇아 풍속을 이루도록 할 것이다”라고 하여 고급 비단의 사용을 금한 것을 보면 주는 고려에서는 상류층 뿐만 아니라 서민 중에서도 재력이 있으면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었던 보통의 수수한 비단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다.<sup>11)</sup> 紬는 또 옷감으로 이용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보자기나 주머니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수하고 실용적인 비단이기도 하였다. 이 복장 유물로 나온 紬 역사 실의 굵기는 물론 경사나 위사의 밀도가 심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보면 정성스레 짠 고급 비단이라기 보다는 광범위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게 실용적 목적으로 짠 보통의 직물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sup>12)</sup>

이밖에도 복장유물에는 삼베와 모시조각도 함께 들어 있어 고려시대 삼베와 모시 織造術이 어떠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삼베는 우리 나라 고대 직물을 대표하는 직물로 布라고 할 경우 삼베를 의미하기도 하였다. 고려 시대는 어용 직물을 전문적으로 직조하던 기관으로 雜織署를 설치하여 錦羅綾絹匠 이외에 麻織匠을 선발해 두고 양질의 마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마포 값은 거의 금값과 같이 변화가 많지 않아서 마포를 가지고 산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 露布란 배를 한동안 화폐대신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마포의 종류도 다양하여 조선시대만 해도 생선 지역에 따라 北布(함경도산), 江布(강원도산), 嶺布(영남산), 돌실나이(곡성산) 등으로 불리었고 그 중에서는 북포를 제일로 쳤다. 오늘날 한국 삼베의 대표적인 안동포는 영포 계통으로 그 종류는 생냉이, 익냉이, 무삼 등 대체로 3종이 있었다. 생냉이는 오늘날 안동포를 대표하는 삼베이지만 바람이 서늘해지면 섬유가 꺾여 못 입을 한 여름용으로 10~11새들 고급으로 치고 있다. 익냉이는 이와 달리 초동까지 사철 입을 수 있는 베로 얼마 전까지도 안동 등지에서 생산되었지만 오늘날은 생산이 끊어진 상태인데 대체로 7새 정도로 직조되어 입었다. 이밖에도 무삼이라 하여 5새 정도로 굵게 짠 서민용 삼베도 있었다. 1새라는 것은 주지하다시피 經絲 80을을 말하는 데 오늘날 12 새 정도면 “잠자리 날개같이 너무 고와, 아까워서 딸에게도 못 준다”고 할 정도로 귀한 베로 치고 있다. 홍덕왕의 금제 교서에서 진골 대등 남자는 26升布 이하, 진골 여인은 28升布 이하를 쓰도록 한 것을 보면, 신라시대 왕실의 경우 28승 이상의 더 고운 베도 만들어 사용했던 것을 알 수 있어 신라시대 삼베 짜는 기술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기술이 고려에도 이어졌기 때문에 서금은 고려의 마포와 모시 직물을 보고 크게 놀란 나머지 극찬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서금은 고려인들 대부분이 모시(紵)와 삼(麻)을 의복으로 만들어 입었다고 기술하면서, 그 직조술의 정교함에 감탄하고 있다 신라 경문왕 9년 당에 보낸 물목에 이미 30새 모시가 들어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sup>13)</sup>, 고려 시대에는 그 기술이 더욱 발전하였을 가능성마저 생각해 볼 수가 있어 서금이 고려의 세모시를 보고 놀랐을 만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금은 특히 세모시에 대해 「제일 좋은 것을 시(紬)라 하는데 깨끗하고 희기가 옥과 같고 폭이 좁다」라고 기술하며, 옥과 같이 희고 깨끗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11) 高麗史 卷 85 志 第39 刑法2 禁令條.

12) 허홍식 등 저, 『高麗의 佛服藏과 染織』, 계몽사 1999 p.p. 203~204 참조.

13) 三國史記 卷 10 新羅本紀 10 景文王 9年 7月條 參照.

그러면서도 이러한 옷감들은 왕공 귀족들만이 입었다고 끝내는 흠집을 남기고 있다.<sup>14)</sup>  
그런데 三國史記 경문왕 8년조 당에 보낸 물목에는 다음과 같은 직물들이 있어 주목된다.

..... 省 略 .....

- 가) 大花 魚牙錦十匹, 小花魚牙錦十匹 朝霞錦二十匹
- 나) 四十升 白氎布 四十四
- 다) 三十升 紵衫段 四十四<sup>15)</sup>

위 사료 가)의 大花 魚牙錦이나 小花 魚牙錦과 함께 朝霞錦은 당에 까지 널리 알려졌던 명품 비단이었다. 그리고 사료 나)의 四十升 白氎布 역시 신라 특산의 명품이었을 것이지만 지금까지는 대부분 학자들이 모직으로 이해하여 그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던 직물이다. 백첩포의 원료인 白氎은 사전적으로 말하면 모직이나 면 두 가지로 모두 해석할 수가 있다. 그런데 白氎을 한국과 신강성 등 북위 35~45에 걸친 한랭한 대륙성 기후대에서 자라는 풀로 꽃이 작아 생산량이 적지만 희고 부드러우면서도 빛이 나는 자연산 면으로, 이것을 가지고 짠 白氎布는 최고의 직물로 여겼다고 고증한 바 있다.<sup>16)</sup> 따라서 백첩포를 자연산 면으로 짠 면포로 보는 경우 경문왕대에 면포제작이 있었음은 물론 그 직조술도 신기에 가까울 정도로까지 발전하여 40승이란 경이로운 수준에 이르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너무나 귀한 직물이었기 때문에 불과 40필 정도만 당에 보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白氎布 生産이 신라사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고려가 건국한 후 24년이 지난 해종 2년(942)까지도 백첩포 생산은 계속되어 후진에 보내졌던 기록이 있는데 그것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대가 보내온 글월과 함께 다음의 물건을 받았다.

- 가) 붉은 바탕(紅地)에 금은 5색실로 日·月·龍·鳳을 수놓은 도포감 두벌. 붉은 바탕에 금은 오색실로 용을 수놓은 침대요감 2벌.

..... 中 略 .....

- 나) 細紵 一百匹, 白氎布 二百匹, 細中麻布 三百匹<sup>17)</sup>

위 사료 가)에 의하면 해종대에는 금은실로 日·月·龍·鳳등을 수놓은 뛰어난 명품 비단이 생산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사료 나)에 의하면 세저 100필과 함께 백첩포 200필을 보낸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때 보낸 백첩포의 수량이 세저의 두배나 되는 200 필이었던 것을 보면, 고려시대 들어와 자연 면포인 백첩포의 생산량이 증가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적어 왕실 귀족 등 특수 신분층 이외에는 널리 이용될 수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신라 시대와 마찬가지로 세저와 細中麻布를 중국에 보냈던 것을 보면 신라시대 뛰어났던 삼베와 모시 제작술이 고려에 그대로 전승되어 생산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다.

14) 徐兢, 앞의 책, 卷 23 土產條.

15) 三國史記 卷 11 新羅本紀 景文王 9年 七月條 參照.

16) 박신희 『한국의 고대복식』 지식산업사 2002, pp 176~203 참조.

17) 高麗史 卷2 世家 第2 惠宗 2年條.



고려 시대인들이 어떤 옷을 지어 입고 살았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나 실물이 남아 있지 않아 분명하게 밝힐 수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새롭게 발견되는 고려시대의 매장 유물들이나 복장유물들을 통해 점차 고려 복장의 실체가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해인사 복장유물로 나온 백저포와 15세의 여성 송부개가 입었던 요선천릭, 동국대학이 보관하고 있는 문수사에서 나온 直領 短袖의 白紵袍 등은 이미 각종 연구에 이용되고 있고, 온양박물관이 인수보관중인 “宰臣庾 弘愼 妻李氏” 銘이 적혀있는 脊衫과 백초의, 直領 窄袖의 紫色 上衣 등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연구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sup>18)</sup>.

한편 서공은 12세기 고려인들이 주로 어떤 옷을 입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기록을 다음과 같이 남기고 있다.

「옛 풍속에 여자의 옷은 흰모시 노랑치마인데 위로는 왕가의 친척과 귀한 집으로부터 아래로는 백성의 처첩에 이르기까지 한 모양이어서 구별이 없다.」<sup>19)</sup>

위 글에 의하면 마치도 고려 여인들이 흰모시 노랑치마를 유니폼처럼 입었던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이것은 서공이 고려에 머물고 있었던 계절에 국한해 흔히 입었던 일반적인 옷 차례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그것도 서공이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던 일반 백성의 처들의 평상복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서공은 귀부(貴婦)조에서는 위의 설명과는 다르게 고려 여인들이 다양한 의상을 입고 있었던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한 바 있기 때문이다.

「흰모시로 포(袍)를 만들어 입는데 거의 남자의 포와 같으며 부늬가 있는 비단으로 넓은 바지를 만들어 입었는데 안을 생명주로 받치니 이는 넉넉하게 하여 옷이 몸에 붙지 않게 함이다. 감람(橄欖)빛 넓은 허리띠를 띠고 채색 끈에 금방울을 달고 비단으로 만든 향낭을 차는데 이것이 많은 것으로 귀하게 여긴다.」<sup>20)</sup>

위 글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고려 여인들은 남자들이 입던 비슷한 형태의 흰 모시포를 입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고려 여인들이 입은 흰 모시포의 옷 맵시에서 오늘날 한국 여인들이 한 여름에 흰모시 두루마기를 맵시 있게 입고 나서는 모습을 연상하게 된다. 더욱이 하얀 포 아래로 언뜻언뜻 비추이는 노란빛 톤 넓은 비단 바지는 흰 모시포와 어울려 한층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무늬비단으로 만든 폭 넓은 실크 바지의 넉넉하고 부드러운 선이 흰모시 포와 아주 좋은 앙상블을 이루었을 것이다. 거기에다 감람빛 넓은 비단 띠를 허리에 두른다면 흰색과 노란색의 접합지점을 선명한 푸른색 띠로 가르는 결과가 되어 백·황·청 3색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게 되어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푸른 띠 위에 비단실로 끈 채색 끈에다가 금방울과 향낭을 달아 차고 나서는 그 맵시는 가히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멋스럽고 세련된 옷맵시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18) 이홍식 등 저, 앞의 책 도판 8~15 참조.

19) 徐兢, 앞의 책, 卷 20 婦人條 參照.

20) 徐兢, 앞의 책, 卷 20 貴婦條.

바지는 고구려 고분벽화는 물론 울주 천전리 신라시대 암각화 속에도 이미 나오고 있다. 천전리의 追銘으로 명명된 명문 아래에 보이는 암각화의 바지는 통이 넓으며 아래는 대님을 친 것처럼 발목에 밀착되어 있었고, 바지가랑이 아랫부분에는 일종의 무늬를 새긴 듯한 모양을 하고 있다. 일견 대단히 활동적인 옷으로 보이며 고구려 부용총 主室의 接見圖에 나오는 바지와 거의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다. 그리고 고려시대 남녀가 공통으로 애용하였던 바지형태와도 부합되는 형태였다. 추명 아래 보이는 이 바지 입은 인물은 위 부분이 없어진 채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그림이긴 하지만 상의 자락이 엉덩이 아래까지 내려와 바지 위 부분을 덮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옷의 길이가 길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고려시대 의상과의 친연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천전리 암각화의 추명이 제작된 연대를 대체로 6세기초로 추정하기 때문에 이 바지 그림이 새겨진 시기는 적어도 추명 제작 시기보다는 앞서는 6세기초 이전으로 볼 수 있다<sup>21)</sup>. 따라서 6세기경 신라인이 입었던 바지 형태 역시 대체로 고구려 고분벽화의 폭 넓은 바지와 유사한 형태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고구려시대에는 신분이 높은 이는 통이 넓고 긴 것을 입고 반면 아랫사람은 산업에 종사하거나 허드렛일을 하는데 편리한 통이 좁은 보다 활동적인 바지를 입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일신라 역시 고구려와 같은 바지형태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도 삼국시대 이래의 바지 전통이 그대로 전해져 널리 애용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서궁은 旋裙이란 목욕할 때 사용하는 속옷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선군을 한문의 뜻만 가지고 추론한다면 속치마 류의 옷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서궁이 중국에서는 보지 못한 옷이 분명하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속곳과 유사한 형태의 속바지로도 볼 수가 있어 고려시대에는 바지의 기능이 다양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궁은 또 고려인들은 廢衣을 입었다 하였지만 설명에서 길은 紅黃色으로 하고 흰모시로 안을 대었다고 소개한 것을 보면 잠옷이 아니라 여름용 차림 이불도 볼 수 있다. 침의를 여름 이불로 보는 경우 한여름에 걸은 화려한 비단으로 꾸미고 안은 몸에 휘감기지 않도록 모시로 바친 시원하고 가벼운 이불을 덮고 지낸 고려 귀족들의 사치와 멋스러움이 어떠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sup>22)</sup>

서궁은 또 고려인들은 목욕할 때 입는 거죽과 안이 6폭으로 된 저상(紵裳)과 속옷인 저의(紵衣)를 만들어 이용하기도 하였는데 길으로 허리띠를 만들지 않고 대신 두 개의 띠가 매어져 있었다고 전했다<sup>23)</sup>. 이것을 보면 고려 귀족들의 목욕 문화가 어느 정도 발달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선군의 존재를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가 문제가 된다.

또 고려의 귀부인들의 의상에 장식으로 사용하던 너울(소울)에 대해서도 서궁은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부인은 향유를 바르기를 좋아 하지 않고 분을 바르되 연지는 칠하지 아니하고 눈썹은 넓었다. 검은 비단으로 된 너울을 쓰는데 세 폭으로 만들었다. 길이는 8척이고 정수리에서부터 내려뜨려 다만 얼굴과 눈만 내놓고 끝이 땅에 끌리게 한다.」<sup>24)</sup>

21) 李宇泰, 「蔚州川前里 畫石 原銘의 계검토」, 『국사관론총』 78, 국사편찬위원회 1997 pp. 40~41 참조.

22) 徐鏡, 앞의 책, 卷 29 廢衣條 참조.

23) 위 책, 卷 29 紵裳條 참조.

24) 위 책 卷 20, 貴婦條 參照.

위 글을 보면 고려인들의 화장술과 함께 고려 여인들이 검은빛 비단으로 만든 폭이 넓고 8척이나 되는 긴 너울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서궁이 기마에 관해 기록하면서 “여인들의 나들이에 종과 말을 주니 대개는 공경 귀인의 처이다. 말꾼은 서너 사람을 넘지 않았다. 비단으로 머리를 덮어썼으며, 나머지 끝은 말 위에 드리우고 샷갓으로 받쳐 썼다.”고 기록하여 소개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위의 기록은 서궁이 고려 상류층 여인들이 말 탈 때 착용했던 너울 쓴 모습은 보지 못하고, 말에서 내린 뒤의 모습만을 보고 그대로 소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분을 바르되 연지를 칠하지 않은데다가 눈썹이 넓게 다듬어져 있었다는 고려 여인의 모습은 조선의 마냥 부드럽고 섬약하게만 느껴졌던 여인상과는 전혀 다른, 여성적이면서도 호쾌하고 당당한 의상에 걸맞도록 치장한 보이시한 화장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 여인이 맵시 있게 펼쳐입고 나들이했던 흰색 모시 포인 백저포에 대해 알아보자. 서궁은 다음과 같이 백저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고려의 평복은 백저포(흰색 모시포)로서 농·상민에서부터 도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흰옷을 입었고 왕 자신도 백저포를 입었다.」<sup>25)</sup>

위의 글과 같이 고려인들이 국왕으로부터 민서에 이르기까지 백저포를 입었다고 하였는데, 백저포의 형태는 어떠하였을까. 寬袖일 때는 袍가 되고 窄袖일 때는 衣가 된다는 견해를 따른다면 소매가 넓고 전체 기장이 긴 형태의 걸옷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sup>26)</sup> 그러나 고려시대 동경에 남아있는 그림을 보면 포의 모양이 두루마기와 유사하여, 같은 포라고 하더라도 시기에 따라서는 착수로 변화하였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그 위에 넓은 띠를 두르고 있었던 점이 조선시대 두루마기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려인들이 유독 백색 저포와 같은 흰색 옷을 선호하였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민족이 흰옷을 숭상하는 사상은 민족사가 형성되던 초기부터 찾아볼 수 있는 원초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우리 민족의 건국신화를 보면 천제자 환웅의 출현으로부터 민족 국가의 건설이 시작되는데, 환웅의 아들인 국조 단군을 하느님(天帝=태양신)의 손자로 믿고 받들면서 우리 민족은 곧 천손의 자손이란 선민사상을 자랑스럽게 갖게 되면서, 흰빛으로 인식했던 햇빛을 숭상하고 흰색을 신성시하게 되었을 것이다. 거기에도 흰색 자체가 가지는 순수함과 깨끗함을 즐기는 민족성에서도 그 이유를 살필 수 있을 것이다.

흰색은 소박하고 단순함도 있으나 그 단순함 속에 오히려 넉넉하고 드넓은 세계를 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어 흰색 자체가 우리 민족성과 잘 어울리는 색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한국인이 염색 기술이 없어 흰색을 입었지 선호하여 입은 것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고려 여인들이 힘써서 깃이나 배를 표백하고 있던 모습을 목도하고 소개한 서궁의 글을 보거나, 쪽빛을 비롯한 다양한 자연 안료가 개발되어 있었던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고려인들이 안료가 개발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흰색을 특별히

25) 徐兢, 앞의 책, 卷 29 農商條 참조.

26)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 p. 172, 이화대학출판소 1989.

선호하여 흰색 옷을 입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려인들이 염색하지 않은 자연색 모시를 그냥 입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백색이 나타나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애쓴 덕에 눈처럼 희게 표백하는데 성공함으로써 흰옷에 더욱 큰 애착을 갖고 자랑스럽게 입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 시대에 다듬이질이 널리 이용된 것도 순백색의 광택이 나는 옷감을 보다 쉽게 얻을 수 있게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 시대에 다듬이질이 널리 보급되었던 사실은 僣遜의 “擬成婦掉衣詞”라는 글에서 “님은 멀리 行役에 떠나가고, 나 혼자 빈 방을 지키니 빈 방도 한스러워 한밤의 추위에 떠난다. 하늘에는 달이 밝아 한 밤에 휘장을 비춰 주니, 흰 이슬은 다듬이 돌을 적시고, 다듬이 소리는 슬픔으로 번진다.” 라고 읊은 것으로도 알 수가 있다.

고려 여인들이 멋을 부리기 위해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었던 사실은 여러 기록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한 예로 서궁이 가을과 겨울의 치마로 황색 비단을 주로 입었다고 기록하면서, 이러한 黃絹으로 된 겨울치마는 귀족과 士民의 처는 물론 거리의 遊女들까지 구별 없이 모두 입고 있었다고 소개한 것으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sup>27)</sup> 이밖에도 서궁이 “왕실의 여자들은 더욱 사치스러워 다홍색 치마나 그림과 수를 더한 호사한 치마를 입기도 하였다”고 소개한 것을 보면 왕실과 귀족의 여인들은 한결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려시대 시문에서도 여인들이 입었던 의상을 묘사한 시구들을 찾아볼 수가 있다. 스님인 宏演이 지은 春米行이란 시를 보면, “푸른 치마 머느리 기운 샌 다리로 방아를 밟는다.” 라고 하여 방아 찧는 머느리의 기운 샌 다리에 걸 맞는 푸른 치마를 상징적으로 묘사하여 고려 여인들이 작업 중 입었던 치마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다. 끝으로 서궁이 전한 붉은 색 한삼에 대한 기록을 소개하면서 이 발표를 끝 매듭지려 한다.

「고려 여인들은 손에 부채를 잡았으나 손톱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하여 많이 들 붉은 빛 한삼으로 손을 가린다.」<sup>28)</sup>

이 글을 보면 12세기 고려 여인들은 소매가 손끝을 가릴 정도의 긴 소매의 붉은 색 한삼을 입었던 것을 알 수가 있으나 한삼 소매가 긴 이유가 꼭 손톱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해서 그러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다.

#### IV. 결 론

고려시대는 거란을 비롯한 여진, 몽고 등 강력한 북방민족의 침입으로 여러 차례 국가 존망의 위기에 봉착하면서도 끝내는 국난을 극복하고 자주성을 지켜 나가면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문화를 이룩해낸 시기였다. 그리고 고려인들은 모든 방면에서 건강하고 수준 높은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면서 독특한 사상, 종교, 예술 및 취미생활을 영위하는 속에서 고려인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의상세계를 열어나갔다.

고려인들의 의복에 이용된 재료는 다양하여 각종 비단과 모시와 삼베 그리고 면포 등

27) 徐兢, 앞의 책, 卷 20 貴婦條 참조.

28) 徐兢, 앞의 책, 卷 20 婢妾條 參照.

이 있었다. 그리고 국가 공식 관복제는 唐, 宋風의 복식이 지배적이었지만 사생활에서는 통일신라시대 이래의 國風의 전통이상이 지켜져 내려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려여인의 의상은 비단과 모시 등 각종 직물을 이용한 고구려이래 전해져 내려왔던 포와 함께 저고리류의 적삼, 바지, 치마 및 한삼 등의 다양한 의상이 발전하였으며 목욕용 전문의상도 갖추어 사용하였고, 긴 비단 너울로 장식하기도 하였던 것을 알 수 있었다.

고려인이 개발하고 발전시킨 고유의상은 환경 친화적이고 일상생활과 조화된 형태의 스타일과 색채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 특징은 흰 색을 주제로 한 다양한 색채의 직물을 사용하면서도 우아함과 여유와 친진함을 함께 갖추고 있었다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이다.